

# 핸들 불심 '전국포교망' 개통

## 운전불자연합회창립... 서울·대구 등 9개지역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웃돕기 솔선다짐

전국의 불자운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거리의 포교사로서 한층 전진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 대전 대구 등 9개지역 운전불자회는 지난 8일 대전 중앙불교대학에서 한국 운전불자연합회(이하 '한국운불연')를 창립했다.

회원과 관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총회에서 법장 스님(수덕사 주지)을 총재로 추대하고 초대회장에 문영호씨(대전 운불연 회장)를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 이태영, 김경수씨, 감사에 이한순 이화선씨, 사무총장에 오택연씨 총무부장에 김기근씨를 선출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서 문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운불연은 삼보를 받들고 상구보리 하 화중생의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기 위해 이제 전국연합으로 출범했다"고 밝히고 "달리는 법장, 거리의 포교사로서 전법에 앞장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운불연이 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운불연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불교의 대중화, 불법의



전국 9개지역 운전불자회는 지난 8일 대전 중앙불교대학에서 「한국운전불자연합회」를 창립하고 그 현판식을 봉행했다.

생활화, 불자의 지성화'를 삼대강령으로 삼고 전국 각 지역 단체인 유대 강화 및 공조체제를 확립, 불교이념 구현과 새로운 교통문화 창달의 시급성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

한국운불연은 대전본부를 비롯해서 서울 대구 광주 안양 성남 청주 등을 부여 등 9개 지역에서 국민정서 순화를 위한

불법포교 및 봉사활동을 펴게 되며 올바른 교통문화정립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한국운불연 각 지회는 매일 한차례 정기법회를 갖고 신심을 증장시키는 한편 해당지역의 불우이웃 돕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실행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운불연은 또한 장애인, 집이 많은 승객등 일반 운전자들이 꺼리는 승객이나 기피하는 지역의 승객을 태우도록 서로 이웃과 함께하며 승선수범하는 운전자라는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모임은 지난 7월 대전에서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 대표들이 모여 전국모임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11월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 규약을 확정, 창립총회를 결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명우 기자〉

### 1백일 계획안 발표 조계종 새해 1월5일

조계종(총무원장 원주스님)이 새 집행부의 개혁 청사진을 펼쳐갈 「1백일 계획안」을 마련한다.

조계종은 「1백일 계획」을 통해 평화적으로 증진을 인수한 새 집행부가 향후 추진해 나갈 개혁의 세부내용을 일정등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새해 1월5일 총무원장 원주스님에 의해 발표된 「1백일 계획」에는 △새 전국 신도회 조직 △대사면조직 △중안승가대 이전 재민면 개혁 △불교병 및 회관 건립안 △성도절 및 4.8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등 △해방 50년 분단 50년을 맞는 남북불교교류 및 통일 △환경 △도덕 △윤리회복 △사회복지 등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개혁의 전반적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력부**

신학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등스님

### “대화로 해결방안 모색할 터”

조계종 「신학원(사설사망 및 법인체)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첫 회의를 갖고 법등스님을 위원장에, 간사에 영배스님을 선출하는 등 운영체제를 갖췄다.

특위는 또한 신학원대책소위원회와 대학대책소위원회로 나뉘어 「신학원」에 성문 석호 인영 원우스님, 「대학」에 지중 법성 현진 화암스님을 각각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법등스님(47)과의 1문1답을 통해 향후 신학원특위의 일정을 들어본다.

▲향후 일정은 ▲일단 현황을 파악하겠다. 그후 신학원·대학회 등의 간부진과 만나려고 한다. 신학원이나 대학회나 조계종 소속의 한 뿌리이기 때문에 일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대방 쪽에서 조계종의 일방적인 조치로 여겨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 ▲조계종 증원 집행부 상의 보장과 권리를 주지시켜 조계종의 관할하에 들어온다면 자율권과 권익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을 납득시키겠다.

▲지난 85년 조계종 84회 총회부터 신학원 대책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10여년 가까이 별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데 이유는 ▲증원 집행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 못했던 관계로 밀어부치는 추진력이 미진했다. 또 성과를 얻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도 미약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엔 조계종 새 증원 집행부 법인체 및 사설사망에 대해 엄격히 권한을 제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집행부의 의지가 뚜렷하므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등스님은 신학원·대학회들과의 상호 협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서로 만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므로 일단 충분한 접촉을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경숙 기자〉

### 무사고기원 청매담 제막

청원 호국 영축사  
충북 청원군 소재 제17전투비행단 호국 영축사(주지법사 법일)는 지난 11일 팔각5층 규모의 청매담 제막식을 가졌다. 공군 청주기지 보라매들을 위한 청매담은 "최근 일어나는 항공사고와 지상사고로 인해 유망을 달린 아이들을 위해 세운다"고 취지문에서 밝혔다. 이날 주지법사 법일스님은 인사말에서 "무사고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불심이 결집되어 일체공생이 항상 화평하도록 서원한다"고 강조했다.

### 구미불청 정기총회

새최정에 노진호씨  
경북 구미불교청년회는 지난 11일 구미 금강사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16대 회장에 노진호(분도신학)씨 부회장에 윤종배씨가 각각 선출됐다.

### 경북 대흥사에 화재

건물전소 3천만원 피해  
경북 영일군 오천을 용산2리 14 대흥사(주지 수장스님)법당에서 지난 8일 낮 12시30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법당(20평)과 관음전(20평) 등 사찰 건물 2채가 모두 타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오후 1시에 진화됐다.

### 새해 사업계획 논의

동국대 동림동문회  
동국대 동림동문회(회장 성웅)는 지난 5일 조계사와 초창식당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3월 정기총회에서 '95년 사업 세부계획안'을 확정키로 하는 한편 1월 11일 신년조례회를 갖기로 했다.

동림동문회는 향후 사무실 마련은 물론 동국발전을 위한 후학육성, 사회복지사업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것으로 알려졌다.

### 석굴암에서 제야법회

31일, 부산불교교육원  
부산불교교육원(주도법사 성제도)은 오는 31일 경주 석굴암에서 제야법회를 봉행한다. 31일 오후 8시 부산불교교육원 앞에서 출발해 경주 석굴암 타종법회를 시작으로 석굴암을 참배하며, 다음날인 95년 1월 1일 불국사에서 아침예불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 “부처님 제자로 살아 가겠어요”

### 종립 초·중·고생 1천여명 5계발아

무너져 가는 청소년의 도덕을 회복하기 위한 연합수계법회가 동국학원사하 각 종립학교에서 봉행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교장 박동만)는 지난 16일 서울 구룡사 만불전에서 '94학년도 합동 수계법회'를 개최, 학생 7백70명, 학부모 30명 등 총 8백여명이 계를 받았다.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직지사 회주)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는 개교 이래 최대규모로 전교생의 반수이상 이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수계식에는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이 염주등 기념품을 학생들에게 선물했다.

이외 앞서 은석국민학교도 지난 9일 수계식을 개최, 6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 1백20여명이 계를 받았다. 또한 명성여중도 지난달 25일 3학년 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계수계식을 봉행했다.

### 법종추 해산 불교자주화 기여

종단개혁의 물꼬를 트고 개혁의 출발의 모체였던 법종추가 종단개혁추진회(공동대표 청화)가 지난 8일 법종추 사무실에서 해산식을 가졌다.

실천승가회를 8개단체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산식은 3월 23일 결성부터 해산까지의 활동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법종추는 지난 2월 5일 석림동문회 사무실에서 종단상황을 진단하고 서의현 총무원장 3선반대와 종단개혁을 추진하는 주제로서 '법종추 종단개혁 추진회'를 결성키로 의견을 모아 3월 23일 창립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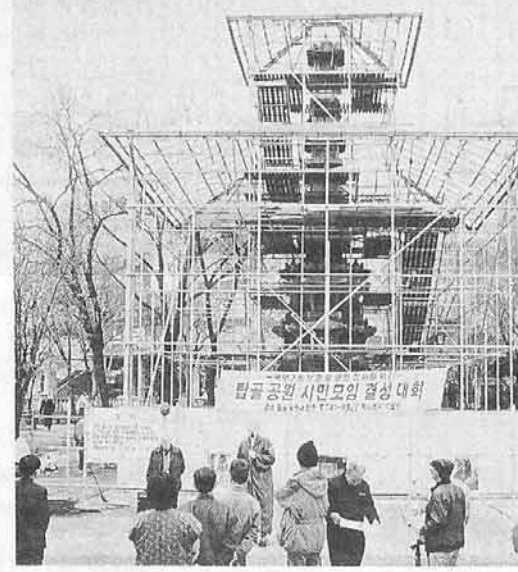
창립이후 법종추는 서의현 총무원장 3선을 저지하는 구종법회로 시작, 전국승려대회·

법불교도대회· 개혁회의 출범· 증원집부의 통과를 위한 단식진정·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등에 이르기까지 '불교자주화'를 내세우면서 승가의 전통과 특색을 살리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 도 문화재를 식당사용 원음각 훼손우려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140호인 관공사 원음각이 3개월전부터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어 군당국이 이를 방지하고 있어 훼손우려가 높아 시경이 요구되고 있다.

창녕읍 옥천리 관공사측은 지난 9월부터 경내에 요사채를 건립하면서 공사장의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원음각 하층(1층) 중심간을 식당으로 꾸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원음각은 조선시대 인조12년(1634년)에 건립된 기와지붕의 목조 2층건물이다.



“원각사탑 우리가 지킨다”

탈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2호)의 보호에 불자들이 나섰다. 훼손상태가 갈수록 심해져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고개의 여론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은 최근 보호시설을 갖추고 정밀 진단과 보존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같은 기류속에서 지난 11일 「탈골공원 시민모임」이 발족했다. 또한 원각사 복원추진회도 탑의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 ‘동지문화’ 새롭게 정착

#### 불교계 연말 이웃돕기·정진법회등 다양

22일 동지를 앞두고 전국 각 사찰이 지역문화제, 이웃돕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 동지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명절로 자리잡고 있다. 동지는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날로 이날 팔죽을 쑤어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액막이를 하던 민속의 하나이다.

이러한 세시풍속이 불교와 결합하여 보시를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풍속으로 바뀌어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열리는 행사로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가 22일 '동지문화제'를 개최한다.

동지기원법회를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지역 양노원, 보육원과 경찰서등을 방문해 팔죽을 공양한다. 칠원 도피안사(주지 정묵)도 이날 동지법회에 이어 '르완다 난민돕기 자비의 종 모금운동'을 펼친다.

성동구 능인정사(주지 법경)는 동지날 성수지역 시립 경노동당 노인 4백여명을 초청, 팔죽 등으로 다과회를 베풀었다. 이외에도 대구 범왕사(주지 실상), 명주 나가사(주지 참우) 등의 사찰은 기도법회를 마련, 새해에 앞서 정진에 들어간다.

##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 현대인의 질병, 그 큰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 수맥은 과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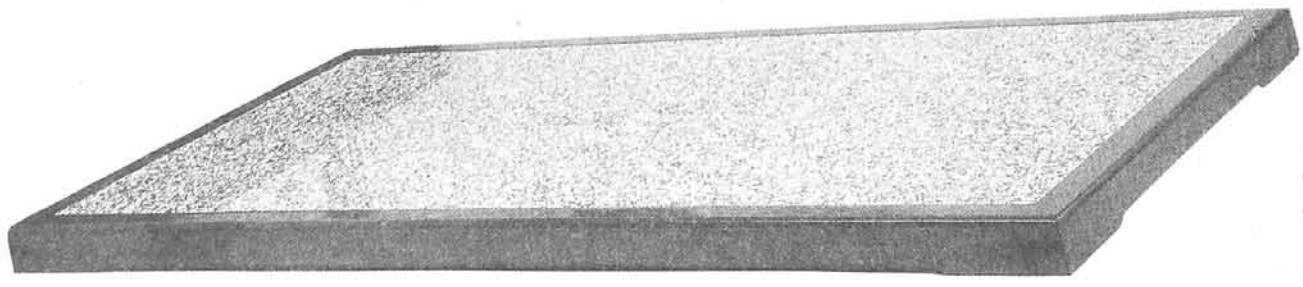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온돌침대(파워스톤)은 이러한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숙면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돌절절기입니다.

### 임상실험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전대학교·원광대학교 양 부속 한방병원의 임상실험 결과가 효과를 입증합니다.

-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 통증의 경감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머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뇌·대하증·산후조리·불면증·교통사고후유증 등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 피로회복·비만·미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 문의하시는 분께 임상실험자료와 수맥관련 책자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규격) : 200×104×8  
200×138×80

• 실용신안특허 : 제068614호  
• 상표등록 : 제245216호  
판매원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석産業株式會社**

\* 전가용품 OIB확독 · 전자파 장해 시험필

품질보증

EM I

공인인증